

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

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(3월 2~3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베트남 3월 경제 동향

- 중동발 해상 운임 급등으로 베트남 수출 기업 비용 부담 확대
 - 중동 지역 군사 충돌 여파로 글로벌 선사들이 전쟁 할증료를 부과하면서 해상 운임이 단기간 최대 3배 상승
 - 수출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경제 구조상 물류비 상승이 제조업 수출 경쟁력 및 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
- 베트남 석유 제품 소매가 상한액 조정
 - 베트남 정부는 미국·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후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정부 결의안 36호에 따른 비상 규정을 발동해 석유 제품 소매가 상한액 긴급 조정 단행
 - 주요 석유 제품의 기준 가격이 이전 조정 주기 대비 7% 이상 상승할 경우, 7일 주기 정기 조정 외 소매가 상한액 조정을 허용
 - 이로 인해 베트남 휘발유 가격은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급 충격이 발생했던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산업용 수요가 높은 경유 가격은 2019년 이후 최고치 기록
 - 베트남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 약 3년 만에 석유제품가격안정화기금(석유기금) 투입
 - 또한 베트남 정부는 시장 안정화 대응조치로 일부 석유 제품에 대해 최혜국대우(MFN) 수입 관세를 0%로 인하
- '25년 2월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(FDI) 집행액 5년래 최고치 기록
 - 2월 기준 FDI 집행액은 USD 32.1억로 전년 동기 대비 8.8% 증가
 - 2월 기준 베트남의 FDI 유치액은 USD 60.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.6% 감소했으나,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620건, USD 35.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.2%, 61.5% 증가
 - 국가별 투자 규모는 한국(37.8%), 싱가포르(31.1%), 중국(14.8%), 일본(4.8%), 홍콩(4%), 미국(2.4%) 순

②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

- 베트남 16대 국회의원 및 각급 인민의회 의원 선거 개최
 - 베트남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유권자 7,651만명 중 7,604만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국 투표율 99.68% 기록
 - 이번 총선은 16대 국회의원 500명과 각급 인민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전국 182개 선거구에서 진행된 것으로, 총선 결과는 3월 22일 공표될 예정
 -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신규 국회 첫 회기(선거 후 60일 이내)에서 국가주석, 총리, 국회의장 선출 및 승인 예정
- 베트남, 공공부문 기본급 8% 인상 추진
 - 베트남 정부는 '24년 7월 임금개혁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기본급 30% 인상을 단행했으며, 올해 7월 약 8% 추가 인상 예정
 - 베트남에서 공공 부문 기본급은 공무원이나 공무직 근로자, 군인의 급여나 각종 수당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액이며,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월급은 기본급에 급여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
- 호치민시, 빈그룹 · FPT · 롯데벤처스 등 9개 대기업과 손잡고 스타트업 펀드 설립
 - 호치민시는 빈그룹, FPT, 롯데벤처스, 비나캐피탈, 소비코, 베카멕스, CT그룹, VNG, 호아센그룹 등 9개 대기업이 창립주주로 참여하는 VND 5,000억(275억 원) 규모의 벤처캐피탈 펀드 설립을 승인하였으며, '26년 3월 사업자 등록을 목표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
 - 투자 우선 분야는 디지털 기술(AI, 빅데이터, 블록체인), 반도체 산업, 첨단 바이오 및 의료기술, 신소재, 재생에너지, 자동화, 로봇공학 등이이며, 투자 대상은 혁신 스타트업, 과학기술 기업, 또는 기술 프로토타입이나 특허를 보유한 인큐베이션 프로젝트
- 하노이, 2030년부터 내연기관 택시 영업 불가 방침
 - 하노이시는 환경 오염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시내의 모든 휘발유 및 디젤 택시를 전기차나 친환경 에너지 차량으로 교체 예정
 - 또한 저배출 구역 도입으로 내연기관차량 통행을 단계적 제한 예정

3 베트남 기타 동향

- 베트남 룡탄신공항, 상반기 완공 및 6월 개항 목표
 - 팜 민 쩌 총리는 최근 베트남공항공사(ACV)를 비롯해 각 부처 및 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1단계 사업의 진척도를 점검하고, 상반기 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과학적이고, 현실적인 세부 시공 계획 수립을 지시
 - 동나이성 룡탄 지역에서 건설 중인 룡탄국제공항은 총 부지 5,000ha에 총사업비 약 VND 337조(128.8억)가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, 이 중 1단계 사업은 활주로 2개와 연간 2,500만 명의 승객 수용 가능한 여객 터미널 건설
 - ACV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3활주로, 여객 연간 2,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터미널 관련 인프라 시설 건설을 골자로 한 2단계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며, 이 중 ACV는 베트남 정부(재무부)가 지분 95.41%를 보유한 1~2단계 사업의 주도적 투자자로 사업 진행 중
 - 또한 룡탄공항과 호치민시를 오가는 총연장 50km의 도시철도 2개 구간(호치민 메트로 2호선 벤틀-투티엠 구간 및 투티엠-룡탄 구간)을 '26년 4월과 6월 잇따라 착공할 계획
- 호치민시 1호선, 유가 폭등으로 닷새간 이용객 24.7% 증가
 - 호치민 메트로 1호선 운영사인 1도시철도공사(HURC1)에 따르면, 중동발 원유 수급 불안으로 유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객이 전주 대비 25% 가량 급증
- SpaceX 스타링크, 베트남 진출 추진
 - Space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인 Starlink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며, 현재 정부 승인 절차 진행 중
 - 베트남 과학기술부 통신국 부국장은 스타링크의 서비스는 기존 유·무선 인터넷망과 경쟁하기보다는, 산간오지와 같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나, 자연재해 발생 시 백업 채널이나 지상망 구축이 어려운 산간 오지의 연결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

□ **일반 프로젝트 동향**

① **일반 프로젝트 동향**

① (베트남) 지아라이성 빈투언 풍력발전단지 개발 추진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지아라이성 인민위원회
- (사 업 비) VND 4.7조 (USD 1.8억)
- (사업내용) 총 설비용량 143MW, 연간 발전량 2.4억 kWh 규모
- (추진계획) 미정

- (주요사항)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그룹의 에너지 부문 계열사인 빈에너지(VinEnergco)가 본 사업 투자자로 최종 선정

② (베트남) 까마우성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추진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까마우성 인민위원회
- (사 업 비) 미정
- (사업내용) 총 설비용량 5,500MW 규모
- (추진계획) 미정

- (주요사항) 빈그룹의 에너지 부문 계열사 빈에너지는 까마우성에 942MW 규모 간하오-땀장, 700MW 까이도이밤, 250MW 띠띠엔, 350MW 땀장, 250MW 띠안, 3000MW 규모 수출용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 총 5,492MW 규모 6개 사업에 대한 투자 승인을 요청
- 앞서 까마우성은 중앙 정부로부터 최대 1만5,000MW 규모의 해상풍력 용량을 할당받아 국내 파트너와 직접전력구매(DPPA) 계약과 더불어 말레이시아 전력 수출을 추진해 온 바 있음